

동명동 골목 살리는 청년들의 '동명동 이야기'

광주 동구 '그대 그렇게 빛나라, 동명' 발간... '로컬 크리에이터' 18인 지역 자원·가치 재생산

광주의 경리단길로 불리는 동명동 골목,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이 곳을 알리고 지킴이를 자처하는 청년들이 있다. 골목 곳곳에서 식당과 카페, 주점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상품으로 재생산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퇴락해가던 구도심인 동명동이 맛과 멋이 있는 젊음의 거리로 변신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손에 꼽히는 밀 생산지인 광주에서 빵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광주와 연관된 상품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수제 맥주를 생각해 봤고 맥주 양조장을 만들게 됐다는 '무등산 브루어리' 윤현석 대표.

윤 대표는 광주에서는 유일무이한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 수제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윤 대표는 '무등산 필스너', '평화 페일에일', '광산 바이젠', '위메 IPA', 광주의 고유한 지명과 전라도 사투리에서 맥주 이름을 따왔다.

윤 대표는 "광주의 오래된 골목 상권과 점포를 개발하던 일을 하던 중, 우리 지역 문화콘텐츠의 다양

성을 알게 됐고 양조장을 만들게 됐다"며 "창업하는 청년들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이 공존해야 지역을 관통하는 콘텐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인 'DNA디자인스튜디오' 안지은 대표는 잘 나가던 사무직구를 떠나 이 곳 동명동에 터를 잡았다.

변화기를 살짝 벗어나 지산동 자락에 자리잡은 안 대표는 "어두운 거리를 우리가 환하게 밝혀보자"는 마음으로 희미진 곳에 사무실을 열었다.

안 대표는 동명동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는

빠지지 않는다.

동구에서 주최한 달빛걸음행사에 종이로 만든 석탑을 선보이는가 하면 쓰레기통인지 예술품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의 아트 조형물을 동명동 일대에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안 대표는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들은 다 동명동에서 열렸다"며 "인쇄 거리도 가까이 있어 입지를 넓히고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골목에서 배드민턴을 칠 정도로 한적했을 때 카페를 시작해, 이제는 동명동의 터줏대감으로 불린다는 '플로리다' 노영찬 대표.

노 대표 역시도 카페 컵홀더에 전라도말을 새겨 넣는 등 광주사랑이 대단한다.

노 대표는 "지역이 빛나야 우리가 빛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써 넣었다"며 "가게 홍보도 좋지만 결국모두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창원 출신 사장이 운영하는 피자전문점 '먼데이 오프 플리즈'와 50년 넘게 살던 한옥을 개조해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문화영 대표의 '예술공간 집', 카페와 상담소가 공존하는 '마음 안방' 등 여러 청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명동을 꾸며가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이들 18명의 이야기를 담은 '그대 그렇게 빛나라, 동명'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들이 들려주는 동명동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립다... 북녘 고향 한식(寒食)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장등동 방향의 동산에서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녘 고향을 그리워하며 망향제를 지내고 있다. 실행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중단된 망향제를 1년여 만에 재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기선 지스트 총장 "사의표명 하지 않았다"

"전달 과정서 오해" 이사회 사의 수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은 최근 이사회가 사의를 수용한 것과 관련,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기선 총장은 이날 5일 지스트 행정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의결 안건이 아닌 기타사항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며 "총장직 배제로 인해 학교 운영과 공익에 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장과 노조를 둘러싼 학내 논란은 법적 문제로 확산하게 됐다.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사의를 수용했다. 이사회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김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사회에서 사의 표명은 전달과정의 오해이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는 당시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조의 직원인 사위위원회 참여 건, 무기직 직원 직급체계, 노조에서 언론에 제공한 총장 사후에 관한 건, 노조가 운영중인 학교 재산 매점 등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총장은 "학교안의 혁신 시도를 세상의 시각으로, 흥미 위주로 쫓아보면 학교의 고유 기능이 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연유로 불편한 마찰과 오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의대 지역인재 전형 '지역 범위 논란'

"광주·전남 학생들 피해 '역차별'...전북 소재 사립고 배려" 의심도

전남대학교가 의·치·약학과 등의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과 관련해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5일 전남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대는 2023학년도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2022학년도 41%에서 62%로 확대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은 현재와 같이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한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전형 계획안이 알려지자 지역인재전형 관련 지역 범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전남대는 호남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북대는 전북만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대가 전북대 등과 달리 지역을 확대한 것에 대해 지역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광주·전남 학

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진학 담당 장학관이 전남대를 찾아 전북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광주지역 고교 진학부장들과 함께 전남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남대 의대 관계자들이 전북 소재 유명 사립고 학생들을 배려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지역을 외면하는 전남대는 지역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힐링교실 운영

상담 등 마음건강 챙기기

광주시교육청 산하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가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24일까지 마음건강 힐링교실을 운영한다.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는 교육청에서 출석인정 교육과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마음건강 중심 대안교육을 제공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학부모 상담도 같은 건물에서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인지요법, 사회기술·적응훈련, 운동요법, 놀이·미술상담, 음악상담, 적성·진로상담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 자격증을 가진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지난해까지는 4주 100시간 과

정이었으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운동요법을 20시간 추가해 올해부터는 120시간 과정으로 편성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매달 신청 시기에 학교를 통해 공모로 신청한 후 학생 및 보호자 면접을 거쳐야 한다. 여학생 달과 남학생 달로 번갈아가며 운영해 연속 참여는 어렵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김정애 광주시교육청 학생마음보듬센터장은 "4월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스펙타터 인력풀 구성이 완료되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전문적 지원이 더욱 다양해진다"며 "모든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교육도 잘 받고 밥도 잘 먹고 체력도 키워서 즐겁게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